

지역 매 아리

부안군 - 부안우체국

잼버리 성공개최 업무협약

부안군과 부안우체국은 17일 부안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전 양권 부안우체국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부안우체국의 우편 및 택배서비시 잼버리 홍보 추진, 잼버리 관련 물품 해외배송시 할인비용 적용, 잼버리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 잼버리 행사시 상호간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군민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잼버리 홍보를 추진하고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 세계잼버리 성공개최의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부안우체국의 자발적 동참은 앞으로 지역의 잼버리 붐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양권 부안우체국장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도움이 돼 기쁘다"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 미국 리지필드

농수특산물 수출 협력 합의

부안군은 미국 뉴저지주의 대표적 한인 타운인 리지필드와 농수특산물 수출 등 관련 협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농수특산물의 해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안군은 전병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농수특산물 미국 시장 개척 방문단을 구성하여 지난 15일 리지필드 타운을 방문하였다.

부안군 방문단은 한국과 미국 도시간 농수특산물 수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데니스 심 시의원과 함께 지역 내에 있는 H마트와 한양마트 등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대형 한국계 슈퍼마켓 등을 방문하여 시장조사를 했다.

부안군 방문단은 이날 시장을 찾아 앤서니 수와레즈 시장, 심 시의원 등 정치인들을 만나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에 대해 설명하고, 수출입 협력을 통해 두 자치단체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부안군은 지난 16일 뉴욕시 퀸즈 한인타운과 상가에서 열리는 골목 축제에서 부안군의 농수특산물 홍보관을 운영하여 부안의 대표 특산물인 그라주, 오디와인, 뽕잎차 등을 홍보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유진섭 시장이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로 참석했다.

'청년이 정읍의 미래다'

유진섭 정읍시장,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주제발표자로 참석

유진섭 시장이 17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했다.

심포지엄은 SBS (CNBC)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국토연구원 등이 후원했다.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실질과 가치'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는 지자체와 기업, 전문가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

유 시장은 '문화 매개 도시재생과 청년'이라는 세부 주제의 심포지엄 연사로 나서 '청년의 흥이 정읍의 미래다'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유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달려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생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강조하며 "청년의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재생사업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임재현 전국도시재생 청년네트워크 대표, 민옥주 크립톤벤처스 대표와 열린 토론을 벌였다.

유 시장은 "청년이 마음껏 꿈꾸고 마음껏 달려보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재생이며, 미래에 대한 투자다"라고 강조하며 "청년의 지속적인 도전과 성장이 가능한 재생사업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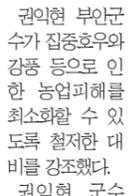
한편 시는 도시재생사업에 행복주택(100호)과 청년메이커센터 구축을 통한 청년꿈터 조성과 어울림플랫폼, 창업캘린저스, 네트워크센터 등 청년 삶터 조성, 그리고 소외된 4·50대를 위한 청년 활력소 설치 계획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도시재생 주민협의회의 구축 및 활동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응모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이는 최근 4년 연속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정읍시가 원도심 활력 찾기를 위한 주민 주도형 사업발굴과 환경 미관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다. /정읍=김대환 기자

집중호우·강풍 대비 농업피해 최소화 집중

권익현 부안군수, 농작물·농업시설물 사전관리 철저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가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7일 열린 주요간부회의에서 "지난해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면적이 4만 6083ha로 지난 2017년 보다 약 9.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중호우와 강풍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사전대비가 최선인 만큼 장마 전 농경지와 농업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권익현 군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대응요령 등에 대한 농가지도에도 철저히 기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규제개혁은 현장과 정책의 틈을 좁히는 과정으로 군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라며 "군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개혁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의 경우 기상여건이 좋아 양파와 마늘 등 농산물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에 적극 나서 달라"며 "주도심 그늘막 설치 등과 함께 폭염대응방안에 대해 연구해 폭염시 즉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언급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신비의 비경에 곳곳서 '탄성'

전북작가회의 60인, 고창 운곡람사르습지 탐방

고창군은 전북작가회의 회원 60여 명이 최근 고창이 지난 천혜의 자연 '보고인' 운곡람사르습지 탐방 일정을 소화해 냈고 17일 밝혔다. 이번 탐방은 전북작가회의는 1980년대 남민시와 전북민족화인협회의의 전통성을 계승한 전라북도 대표 문학인 단체다.

탐방은 문화예술의 고장인 한반도의 첫 수도 고창 임을 천명한 유기상 군수의 안내로 진행됐다. 1797km의 '운곡람사르습지'는 인공습지 견학 코스는 이번 탐방의 하이라이트였다.

운곡습지에 탐종 위기에 처한 수달과 새 800여 종의 생물이 산다.

호젓한 숲길 곳곳엔 원시 비경에 60여 시인, 소설가들은 연신 탄성을 지어냈다.

당초 세계적 유산 고인돌유적과 공존하는 랍사르습지는 과거 계단식 논 경작지였다. 그러나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취수원으로 30년 넘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자연

습지 생태계로 복원된 후 생태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날 일정은 습지 탐방 후 식도라 마을로 지정된 고창 호암마을에서 50년 세월 한센인의 친구 푸른 눈의 천사 강길라 수녀의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들어진 맛갈스러운 점심식사와 작가회의 측의 도서증정식으로 끝을 맺었다.

전북작가회의 김중필회장은 "작가회의는 이번 탐방일정 이후로도 문학인의 관망과 복지를 지켜내는 일, 국제교류를 통해 문학의 위상을 높이는 일, 무엇보다 세계문학 속에서 찬다운 문학을 이룩하는 일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상 고창군수는 "문학인들의 이번 지역 탐방 및 교류는 흔치 않은 일기에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창작에 전념하는 문학인들이 고창을 널리 알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핵과류 자두곰보병 조사 진행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자두곰보병 예방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핵과류 재배 190 농가(77ha)에 대한 예방조사와 발생 조사를 진행한다.

기술센터는 자두곰보병을 전염시키는 매개곤충(진딧물 등) 방제를 철저히 하고 전정 시 소독을 철저히 하도록 관련 농가에게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두곰보병(PPV, PlumPoxVirus)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으로 벚나무 속 식물인 복숭아와 살구, 자두, 매실나무 등에 발생한다.

감염되면 잎에 모자이크 또는 원형 반점이 나타나며 과실은 모양이 불균일하게 기형으로 되어 수확량이 70~100%까지 감소된다.

자두곰보병 감염이 확인되면 확산 방지를 위해 뿌리째 뽑아 땅속에 묻어야 하고 최소 3년 동안 핵과류 재배가 불가능해 농가소득에 큰 손실을 초래한다.

이 병은 바이러스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치명적이다. 따라서 무병 품종묘 사용과 잡초제거 등 청결한 과원 관리, 진딧물 방제, 그리고 전정에 사용한 가위와 톱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술센터 관계자는 "핵과류 재배 농가는 자두곰보병 의심증상이 보이면 자원개발과 과수팀(539-6321~3) 또는 지역농업인상담소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정읍시에장애인복지관이 17일 현대자동차 정읍지점, 전주 서비스센터와 함께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했다.

행사는 시간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차량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관 주차장에서 진행됐다.

현대자동차 전주서비스센터 직원들은 와이퍼 교체와 타이어 공기압 점

검, 부족한 워셔액과 엔진오일 보충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전반적인 부분을 점검했다.

현대자동차 정읍지점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들의 안전에 보탬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량 무상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Mulberry Wine. The ad features a cartoon bear mascot and several bottles of win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